

미-러,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까



16일(현지시간) 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아우디우카에서 군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주 고위급 회담 개최... 이달말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도 우크라, 회담 배제 불만 토로 "그 누구도 푸틴 믿어선 안돼"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한다. 스티브 워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는 16일(현지시간) 포크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위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날 밤 사우디 방문길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워트코프 특사는 왈츠 보좌관은 사우디에서 현재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트코프 특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회동을 가질 것"이라면서 "정말로 좋은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왈츠 보좌관도 포크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시작했고, 앞으로 몇주 동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에서 진행될 이번 협상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처음 직접 대화하는 것으로,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적극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단 배제된 우크라이나 측

은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푸틴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했으며, 푸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푸틴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루비오 장관은 "내가 아는 것은 푸틴이 평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인데, 물론 그다음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푸틴이 종전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몇주, 며칠 안에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지정학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정치에서 더 나은 협상가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금방 알아낼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 우크라이나 측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된 것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양측이 이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짜 협상에 도달하면 우크라이나가 개입해야 할 것이고, 유럽이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을 위한 대화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관여하라는 질문에 "그도 관여할 (be involved)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협상에 참여할지,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서방 동맹인 유럽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간 진행되는 협상 속도전에 '패싱' 당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미-러 고위급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 시점에 대해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집트, 가자 재건 '트럼프 대안' 제시

가자 관료·시민단체 지원위, 재건·통제 담당...하마스 배제

이집트가 세계은행과 함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 소유의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대안에는 가자지구의 관료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인 지원위원회가 재건과 통제를 임의로 담당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원회는 독립적인 관료들과 시민사회단체 노조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특정한 파벌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꾸린다는 구상이다.

아랍 국가들은 오는 2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릴 아랍정상회의에서 이집트가 마련한 이 대안을 논의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를 중심으로 한 아랍 국가들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자지구 재건 자금 확보를 위한 재정적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자지구는 65% 정도가 파괴된 상태로 재건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랍에미리트의 고위 외교 고문인

안와르 가르가위는 최근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가자지구 행정부에서 하마스가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아불 게이트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팔레스타인인 이주 계획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이 하마스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마스의 향후 군사적 지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대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하마스를 가자지구에 남겨두는 계획은 이스라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르단강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서안과 가자지구 간의 영구 분할에 대한 우려로 가자지구에 지역 지원위원회를 두려는 이집트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PA를 주도하는 정파인 파타당 관계자는 가자지구 지역 지원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 '트럼프 트레이드' 대장주 등극

트럼프 튀임 후 7% 상승 달러·비트코인은 '추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이 '트럼프 트레이드' 대장주가 됐다.

17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트럼프발(發) 무역 전쟁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 타격 우려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금값은 온스당 2942.70달러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이후 7%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 오른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펼쳐진 '트럼프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미국 달러화 가치와 미국채 금리,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는 취임일 직전 109에서 106 수준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62%에서 4.48%로 각각 밀린 상태다.

달러화 가치와 미 국채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와 대규모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

등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끈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7만 5000달러대에서 사상 처음 10만달러대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도 취임일 이후 상승 동력이 약화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취임 직전일 10만7천달러대에서 현재 9만7천달러대로 후퇴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금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인식이다.

금 정련업체인 MKS 펌프의 애널리스트 니키 실스는 "금은 '트럼프 관세 트레이드'라며 "관세 부과와 금값 상승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선운용사 RLAM의 다중자산 책임자 트레버 그리샴은 "금은 지정학적 헤지, 인플레이션 헤지, 달러화 헤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당초 우려됐던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서 유로화처럼 수출 비중이 큰 국가의 통화 가치를 밀어올리고 있고, 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초점이 무역 전쟁에서 경제 성장 둔화로 옮겨지면서 국채 매입 수요를 가져왔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미국 증시가 추축하는 동안 올해 들어 홍콩恒生지수는 13% 이상 급등했고,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9% 오르면서 다른 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